# Context Switching

박창희

### 목차

- 1. Context Switching이란?
- 2. Context Switching의 동작 방식
- 3. Context Switching 도중 발생한 오버헤드
- 4. Context Switching에서 Process 와 Thread의 차이
- 4-1 Thread에서 Context Switching 더 깊게 보기
- 5. 내용 정리 & Qn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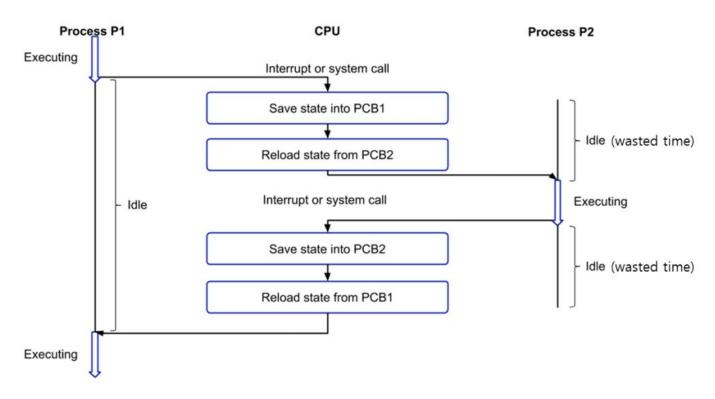
## Context Switching 이란?

운영체제가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, 현재 CPU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(P1)를 중단하고 다른 프로세스(P2)로 전환하는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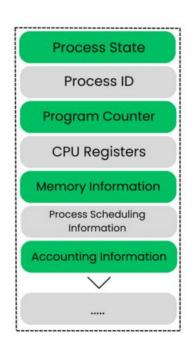
Context Switching이 필요한 이유

- CPU 자원의 효율적 사용
- 멀티태스킹 지원
- 프로세스 간 공정성 보장
- 대기 시간 최소화 (I/O 등)

### Context Switching 동작 방식



### PCB (Process Control Block)에 저장되는 정보



**Process State** : Ready , Running Waiting 프로세스의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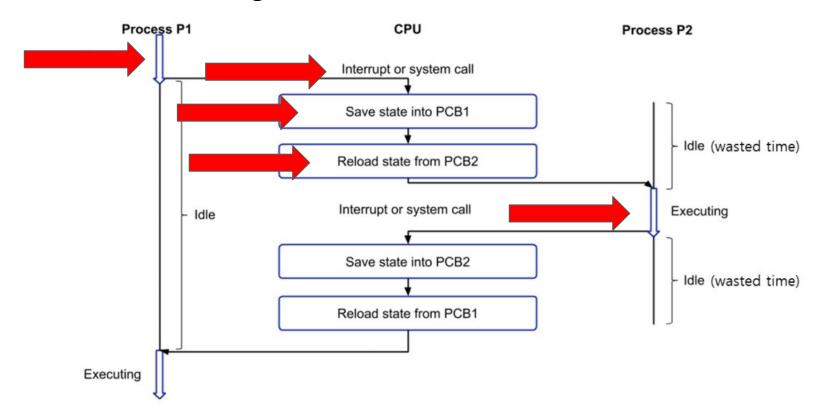
ProcessID: 저장된 프로세스

Program Counter : 프로세스의 다음 실행 명령어 주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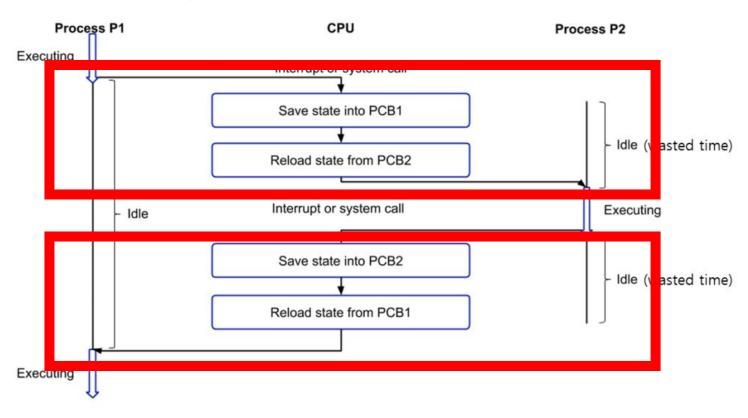
CPU 레지스터 값

프로세스 스케줄링 정보 : 우선순위 / CPU 사용 시간, 대기 시간, 실행 시간, 메모리 사용량

# Context Switching 동작 방식



## Context Switching 오버헤드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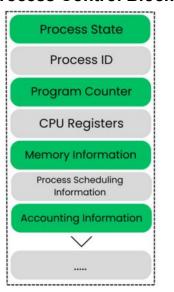
### Context Switching 오버헤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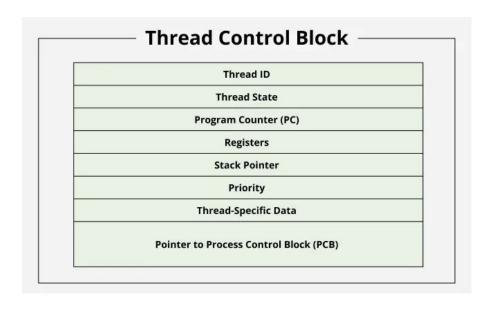
Context Switching 의 오버헤드 발생은 단순히 PCB 저장/복원에만 그친게 아닌 하드웨어 레벨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!

- -> 때문에 Context Switching이 왜 비용이 크다
- 1) 캐시(Cache) 영향
- 2) 파이프라인 (Pipeline) 손실
- 3 )TLB(Translation Lookaside Buffer) 무효화

# (Process vs Thread) Context Switching 차이

#### **Process Control Block**





### Thread Context Switching 더 깊게 보기

### **Green Thread** vs **Native Thread** Switching

Green Thread(유저 레벨 스레드)

사용자 공간 스케줄러 가 스택/레지스터 교체  $\rightarrow$  커널 진입 없음, Context Switching 비용이 매우 저렴.

**Java Virtual Thread**: Green Thread 모델을 발전시킨 형태  $\rightarrow$  OS 스레드 위에서 동작하지만, 유저 레벨에서 수백만 개 스레드를 경량으로 관리 가능.

Native Thread(OS 스레드)

운영체제가 직접 관리하는 스레드.

커널이 스케줄링 → 진짜 선점형 멀티태스킹, 블로킹 syscall 발생 시 해당 스레드만 멈춤.

Context Switching 비용이 Green Thread보다 큼 → 커널 경계 통과 + PCB 교환 + 캐시/TLB 영향.

### https://github.com/SSAFY-Seoul-Class-7/STUDY Operating System/blob/main/Context%20Switching%2C%20Scheduling/ThreadSwitchBenchmark.java

Wall-clock : 0.142 s

Throughput : 140845.1 tasks/s

Used heap (approx.) : 0.0 MB

- Wall-clock: **0.142 s** 
  - Throughput: 140,845 tasks/s
  - → Virtual Thread는 20,000개의 블로킹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실제 걸린 시간은 **0.1초 + α 수준**으로 끝남

[platform] Progress: 2.000 / 20.000 「platform] Progress: 4,000 / 20,000 [platform] Progress: 6,000 / 20,000 [platform] Progress: 8,000 / 20,000 [platform] Progress: 10,000 / 20,000 [platform] Progress: 12,000 / 20,000 [platform] Progress: 14,000 / 20,000 [platform] Progress: 16,000 / 20,000 [platform] Progress: 18,000 / 20,000 [platform] Progress: 20,000 / 20,000 ====== PLATFORM ====== Tasks : 20,000 Per-task block : 100 ms (simulated blocking) Platform pool size : 11 Wall-clock : 189.092 s

- Platform pool size: 11 (코어 수 기반 풀)
- Wall-clock: 189.092 s

Used heap (approx.): 0.0 MB

Throughput: ~105 tasks/s

Throughput : 105.8 tasks/s

→ Platform Thread는 풀 크기(11개)에
제한되어, 20,000개의 블로킹 작업을
순차적으로 분배하느라 200초 가까이 걸림

## Interrupt 는 context switching 간의 관계

인터럽트는 컨텍스트 스위칭의 한 종류인가? X

Interrupt는 Context Switching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 → **동작의 계기** (Trigger)

### Interrupt 와 Context Switching의 차이

Interrupt의 주체: CPU 내부의 Interrupt Controller가 직접담당

Context Switching 의 주체 : OS kernel이 담당

## 시스템 콜은 Context Switching인가요?

시스템 콜에서 **Kernel Mode** ↔ **User Mode 전환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아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프로세스(또는 스레드)** 자체를 바꾸는 동작이다,

User Mode ↔ Kernel Mode 전환은 같은 프로세스가 실행을 이어가는 상황.

- 시스템콜은 실행 모드(권한 레벨)만 바뀌는 것.
- PCB 교체 없음.

BUT, 전환 과정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*발생할 수도 있다* 

### 복습 겸 면접 질문으로 생각 해봐야 될것들

- Context Switching이 왜 비용이 큰가요?
- Context Switching은 어떻게 동작하나요?
- TLB와 캐시 관점에서 Context Switching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?
- 프로세스 Context Switching과 스레드 Context Switching 차이는 무엇인가요?
- 인터럽트와 Context Switching의 관계는 무엇인가요?
- 시스템 콜은 Context Switching인가요?
- Context Switching 오버헤드를 줄이는 방법은?

<번외>

- Green Thread와 Native Thread Context Switching 차이는?
- Java Virtual Thread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?
- 멀티코어 환경에서 Context Switching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?

# Q&A

질문 받아요!